

광산구 밤길 범죄예방 '외국인 순찰대' 뒀다

몽골·베트남·중국·파키스탄 출신들로 구성

범죄 대처요령, 문화적 차이 극복 매개 역할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사는 광산구의 '외국인 방법 순찰대'가 화제다.

최근 지역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면서(광주일보 8월 20일 6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자 외국인 자체 순찰대가 밤길 범죄예방에 나섰다.

지난 24일 밤 8시경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 매일시장, 몽골·베트남·중국·파키스탄 출신 외국인들로 구성된 '외국인 방법 순찰대'가 순찰등을 켜고 시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이들은 외국인 마트·식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외국인 범죄 대처 요령' 팸플릿을 건넸다. 한국생활 7년째인 방글라데시인 라주(38)씨가 "외국인 범죄 순찰대가 책임 질게요"라며 정승현(여·39)씨에게 팸플릿을 주자, 정씨는 "고생이 많네요"라고 답했다.

지난 12일 발대식을 한 이후 순찰대에 지원하려는 외국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순찰을 돈 지 두 번째인데도 지역민들과 공간 인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방법대가 활동하기 전 이 일대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골머리를 앓았다. 주말이면 외국인 젊은이들이 매일시장 인근·하남공단 내 기숙사·편의점 등에 폐지어 술을 마시고 언성을 높이기 일수였다.

또 태국·중국·몽골 등에서 온 외국인들은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빚었다.

방법대가 읍주·교성방가 단속에

나서고 비용을 준 뒤 쓰레기를 버리는 한국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빚어진 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설명이다. 치안과 방법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외국인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에 동화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매일시장 안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수하(48)씨는 "외국인들이

식당에서 간혹 술을 마시고 싸우는 데, 방법대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준다니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생활 1년째인 방글라데시인 알몰(35)씨는 "방법대에서 다른 외국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며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며 "나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부듯해 했다.

한편, 광산구에 75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하남·광동·소촌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모두 613개 업체에 3000여명이다. 광산구 내 외국인 다중이용업소는 송정(14곳)·월곡 및 우산(11곳)·하남(3곳)·광동(2곳)·신가(1곳) 등 모두 31곳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24일 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 매일시장의 한 외국 음식점에서 '외국인 방법 순찰대'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서 제공)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1분 해질 19시 06분 달출 22시 50분 달몰 12시 10분

큰 일교차
무더운 가운데 구름 많은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22/32℃
목포	구름많음	22/31℃
여수	구름많음	23/30℃
나주	구름많음	19/32℃
완도	맑음	21/32℃
구례	맑음	20/32℃
강진	맑음	19/31℃
해남	맑음	19/32℃
장흥	맑음	19/32℃
순천	맑음	19/31℃
영광	구름많음	20/31℃
진도	구름많음	20/31℃
전주	구름많음	21/32℃
군산	구름많음	20/30℃
남원	구름많음	19/31℃
혁신도	구름많음	23/29℃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0.5~1.0m 위험 매우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0.5~1.0m 위험 매우높음 높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수)	29(목)	30(금)	31(토)	9/1(일)	2(월)
날씨						
최저/최고	22/32	24/26	23/26	22/28	22/28	21/29

광주교육청 '낙제' 전남교육청 '선전'

광주 6개분야 항목 '우수' 한 곳도 없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선전'한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에도 '낙제'를 면치 못했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인천·부산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도 지역에서는 경북·충남·제주·충북이 높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았던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부문에서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6개 평가 항목 중 단 한 곳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학생역량 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인성 및 학생복지 증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교육만족도 제고, 시도 특색 사업 등 6개 영역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성과 평가에서는 광주가 7개 시교육청 중 종합등급 4위(보통)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9개 도교육청 중 6위(보통)를 나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또 미뤄진 조선대 이사 선임

총장·총동창회장 중 임명 놓고 의견 엇갈려

조선대 이사회가 총원 9명중 자리가 빈 1명의 이사를 총원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또 미뤄졌다.

총장이나 총동창회장 중 1명을 이사로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정을 보류했다. 이사회는 총장과 총동창회장이 상호 합의해 1명을 후보로 결정해달라는 권고안을 냈다.

조선대 이사회는 26일 오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권석이사(1명) 임명 결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해 권석이사 1명을 총장이나 총동창회장 중에서 선임하기로 하는 결

정했다. 그러나 총장과 총동창회장 중 누구를 권석이사에 임명할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회의장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입장하면서 부담을 느낀 이사회가 안전을 표결에도 넘기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총장과 총동창회장에게 합의해 달라는 권고안을 냈지만 이날 두 사람 간 대화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사회는 다음달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학생 10명중 3명 "등록금 없어 휴학 계획"

취업포털 사람인 설문조사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가량은 등록금이 없어 다음 학기 휴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5~13일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7.3%(74명)가 '학비 마련을 위해 2학기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상 휴학 기간은 1년이라고 답한 학생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24.3%), 2년 이상(12.2%), 1년 6개월(8.1%)의 분

포를 보였다. 휴학 중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학생이 66.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업 단기 취업'(44.6%), '공모전 등으로 삼금 모으기'(9.5%), '주식 등 단기투자'(2.7%) 등의 순이었다. 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일의 강도에 상관없이 높은 임금'(44.6%), '후후 취업에 도움'(29.7%), '복학 후에도 지속적인 근무 가능 여부'(13.5%),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직무'(4.1%)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방사선 치료도

암수술 보험금 받는다

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암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 방사선 치료 시 암 수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

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맞지 않자 보험사에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기념!

2013 제1회 **광주광역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트레킹 대회**

일시 | 9월1일(일) 오전 9시 장소 | 문빈정사앞 중심사잔디광장

다채로운 볼거리와 사은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복한 창조도시"의 완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생활체육 트레킹 연합회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광주확정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기념으로 15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는 생활체육 트레킹 대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트레킹연합회장 조 종 석 / 광주광역시 광산구 트레킹회장 양 춘 석

주최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주관 | 광주광역시트레킹연합회
협찬 | 도이더 용봉점, 밀레 침단점, 블랙야크 흑석점

참가비 무료
트레킹 신행복장 지원